

위기의 지구와

‘노나메기’라는 ‘하제’(희망)

류보선

문학평론가,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1.

희망 없는 역사와 ‘악의 평범성’

장편 연작시 「한라산」(1987)으로 필화사건을 겪어 ‘한라산의 시인’으로 알려진 이산하가 오랜만에 시집을 냈다. 『악의 평범성』이다. 그런데, 이거, 참, 뭐랄까, 「한라산」을 발표한 지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이산하는 여전히 ‘한라산의 시인’이다. 일찍이 평론가 김현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 “내 육체적 나이는 늙었지만 내 정신의 나이는 언제나 1960년 18세에 멈춰 있었다. 나는 거의 언제나 4.19세대로서 사유하고 분석하고 해석한다. 내 나이는 1960년 이후 한 살도 더 먹지 않았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거니와, 이 김현의 말을 빌어 말하자면 이산하는 거의 언제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한라산’의 시선으로 세상을 사유하고 분석하고 해석한다.

『악의 평범성』에 따르면 ‘제주 4·3 항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현재진행형 일 뿐 아니라 세계 역사의 시금석적인 사건이다. 아주 오래 전부터 세계 전역에서 ‘제주 4·3 항쟁’과 같은 사건들이 발생했고, ‘제주 4·3 항쟁’ 이후에도 ‘제주 4·3 항쟁’과 같은 사건은 줄곧 반복되고 있다. 세계는 여전히 폭력적 구조 혹은 구조적 폭력에 의해 통치되고 있고 그 구조적 폭력은 ‘악의 평범성’ 혹은 ‘평범성의 악’에 의해 세계 곳곳에서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 수산시장의 대어들.”/ “육질이 빨간 게 확실하네요.”/ “거즈 덮어놓았습니다.”/ “에미야, 흥어 좀 밖에 널어라.”// 1980년 5월 광주에서 학살된 여러 사진들 사진과 함께/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 있는 글이다./ “우리 세월호 아이들이 하늘의 별이 된 게 아니라/ 진도 명물 꽃게밥이 되어 꽃게가 아주 탱글 탱글/ 알도 딱 차 있습니다~.”// 요리 전의 통통한 꽃게 사진과 함께/ 페이스북에 올라 있는 글이다./ 이 포스팅에 ‘좋아요’는 500여 개이고/ 감탄하고 부러워하는 댓글은 무려 1500개가 넘었다./ ‘좋아요’보다 댓글이 더 많은 경우는 흔지 않다./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고 환호한 사람들은/ 모두 한 번쯤 내 옷깃을 스쳤을 우리 이웃이다./ 문득 영화 「살인의 추억」 마지막 장면에서/ 비로소 범인을 찾은 듯 관객들을 꿰뚫어보는/ 송강호의 날카로운 눈빛이 떠오른다/ 범인은 객석에서 숨어 있고 우리집에도 숨어 있지만/ 가장 보이지 않는 범인은 내 안의 또 다른 나이다.(『악의 평범성 1』 전문)

『악의 평범성』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평범한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렇게 평범한 존재로 악을 행하는지도 모르면서 악을 실현하는 한, 아우슈비츠는, 제주의 4·3은 영원히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 때문에 시인은 ‘시인의 말’에 “내 시집에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는지도 모른다. 그만큼 『악의 평범성』은 세계의 역사 전체를 종말론적으로 바라보며 동시에 오늘날의 현존재들에 대해 비관적이다.

비록 『악의 평범성』이 인간 역사 전체의 발전가능성과 현존재들의 잠재성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비관적이지만, 그렇다고 언뜻언뜻 현현하는 진리의 빛에 대해서도 눈을 감는 것은 아니다. 『악의 평범성』은 ‘악의 평범성’이라는 어두운 심연에 극단적으로 절망하고 있기 때문에 찰라적으로 현현하는 일망의 희망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구하고 난 나중에 나갈게./ 우리 승무원이 마지막이야.”/ -故 박지영 승무원//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 故 남윤철 단원고 교사// “내 구명조끼 니가 입어.”/ -故 정차웅 단원고 학생// “지금 빨리 아이들 구하러 가야 되니/ 길게 통화 못해. 끊어.”/ -故 양대홍 사무장/ “걱정하지 마. 너네들 먼저 나가고 선생님 나갈게.”



-故 최혜정 단원고 교사// ‘세월호 사건’에 대해 여러 번/ 시 청탁을 받았지만 결국 쓰지 못했다./ 이 이상의 시를 어떻게 쓰겠는가.(「유언」 전문)

『친일문학론』과 『일제침략과 친일파』 등의 저자인/ 임종국 선생이 젊었을 때 일제시대의 신문을 뒤지다가/ 뜻밖에 자기 아버지 이름을 발견하고는 충격에 빠졌다./ 혼자 며칠 고심하다가 마침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가 친일파 책을 쓰려고 옛날 부역자 자료를 찾다가/ 아버지 이름이 나온 신문 기사를 봤어요……” “……”/ “아버지 이름을 …… 뺄까요?”/ 아들 앞에서 고개 숙인 아버지가 오랜 침묵 끝에 대답했다./ “중국아. 나를 밟고 가라./ 내 이름이 빠지면 그 책은 죽은 책이다.”(「나를 밟고 가라」의 전문)

『악의 평범성』 속에 간혹간혹 튀어나오는 ‘선의 비범성’의 빛은 이렇게 강렬하다. 때문에 그 찰라적인 불빛에 노출되는 순간 우리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제목에도 불구하고 전혀 새로운 상상을 하게 된다. 혹시 이러한 진리의 순간이 이어지면 이제는 ‘악이 비범’해지는 날이 오는 것은 아닐까. 아니 ‘선의 평범성’이 구현되는 그러니까 평범하게 사는 것이 곧 선하고 참한 삶이 되는 날이 도래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되면 ‘한라산의 시인’에게서 ‘낙관 없는 희망’ 같은 제목의 시집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날은 결코 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날에 대한 기대를 접게 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부디 이산하의 시집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2.

뒤늦은 귀환 혹은 진정한 출발

여러 차례 텅 빈 영화관에서 거의 홀로 영화를 보면서 가능한 한 자주 영화관을 찾으려 했다. 이 다짐이 영화관이 계속 열려 있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덕분에 세 편의 인상적인 영화를 만날 수 있었다. <세 자매>, <모리타니안>, <스파이의 아내>. 세 편 모두 강렬한 여운이 남는 영화였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뒤늦게 도착한 영화라는 느낌도 있었다. 적어도, 내겐, 그랬다.

이승원 감독의 <세 자매>는 어두운 영화였다. 여기, 세 자매가 있다. 이 세 자매는 모두 극도의 불안 속에 휩싸여 살아간다. 물론 그녀들의 불안은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자유 가능성에 대한 기대’라는 의미의 불안과 거리가 멀다. 그녀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녀들의 불안은 과거로부터 온다. 예고 없이 출몰하는 어떤 원장면들 때문에 그녀들은 문득, 문득, 가던 길을 멈추고 떨거나 기도하거나 술을 들이켠다. 말언니는 말한다. ‘내가 미안하다.’ 그런가 하면 둘

째는 기도한다. 그리고 말한다. ‘언니가 늘 기도하는 거 알지?’. 막내딸도 하는 말이 있다. ‘나는 쓰레기야.’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후반부로 가면서 그녀들의 불안의 실체 혹은 실재가 서서히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문득문득 귀환하는 트라우마 때문에 그녀들이 공포의 정동과 죄책감에 휩싸여 있었음이 암시된다. 이쯤에 이르면 이 영화의 선택지는 하나 밖에 없어 보이는데, <세 자매>는 그 필연의 수순을 밟아간다. 그것을 덮느라 병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으면서도 그녀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덮어두려 했던 바로 그 원장면을 향해. 하지만 필연의 수순을 밟아간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측가능한 장면들이 연속된다고 해서, <세 자매>의 긴장감이 떨어질 거라고 미리 짐작할 필요는 없다. <세 자매>는 그 유일한 길, 그러니까 그 충분히 예측가능한 길을 가면서도 그것을 독특한 속도와 풍부한 디테일들로 조절하여 끝까지 예사롭지 않은 긴장감을 유지한다. <세 자매>는 바로 그 원장면을 놀라울 정도의 인내력으로 최대한 지연시키고 정말 오싹할 정도로 강렬하게 터뜨린다. 히치콕이 말한 서스펜스와 공포를 동시에 가동시킨다고나 할까. 하여간 <세 자매>는 영화의 거의 마지막에 가서야 세 자매인 그녀들과 외아들인 그의 삶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은 원장면을 관객 앞에 드러낸다.

<세 자매>가 마지막에 드러낸 그 원장면은 원장면에 값할 정도로 충분히 무시무시하며 실재적이다. 세상에는 점잖은 이로 알려져 있으나 집에서는 치명적 폭력을 일삼는 원초적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가 빚어내는 공포와 전율의 풍경. 이 원장면이 밝혀지는 순간 그녀들과 그의 마음의 병이 이 원장면을 억누르고 이겨내려는 안간힘의 결과임이 밝혀지고, 그녀들과 그의 수수께끼같았던 이상 행동의 퍼즐이 맞춰진다. 그녀들과 그는 거칠게 단순화하자면 각기 신경증(매티니는 히스테리, 둘째는 강박증), 분열증(막내딸), 정신병(아들)을 앓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모두는 원초적 아버지의 가혹한 폭력의 트라우마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내기 위한 안간힘, 그러니까 방어기제였음이 밝혀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세 자매>는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를 아주 치밀하게 재현한 정신분석의 드라마라 할 만하다.

<세 자매>를 보는 내내 정교하게 세공된 정신분석 드라마에 감탄하면서도 마음 한 켠에서 설마, 하는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놀라울 정도의 인내력으로 감추었다가 마지막에서 드러내려는 그 원장면이 혹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만한 그 장면 아닐까 하는 조마조마한 마음. 가족 모두의 생사여탈권을 쥐 듯 일상화된 폭력을 가하는 아버지와 그 남편의 폭력에 속수무책인 어머니, 그리고 그 폭력의 노골적인 희생자인 아이들(특히 딸들)의 이야기라면, 그것은 너무 자주 반복되었던, 그것도 한두 세대 전의 성장 서사에서 단골 메뉴였던 이야기가 아닌가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러날 원장면이, 그것이 어떤 장면이어야 할지는 가늠조차 할 수는 없으나, 우리에게 익숙한 그 장면이 아니길 바랐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세 자매>는 그 이야기를 반복한다. 그것도 아주 충실하게. <세 자매>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무엇보다도 먼저 ‘뒤늦게 도착한 영화’라는 말이 떠오른 것은 이 기시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 자매>를 되짚어 보면서 ‘뒤늦게 도착한 영화’라는 감상을 접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세 자매>가 ‘세 자매’의 실패한 성장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병증이 깊은 상태이지만 ‘세 자매’는 무너지지 않으려는 안간힘을 통해 어느 정도 일상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를 지켜내며, 그 덕분에 아이들의 어머니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한다. 그녀들은 어머니의 역할을 행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는다. 과잉이거나 과소의 억압을 행할 뿐 필수불가결한 억압을 적절하게 행하지 못하며, 그 결과 그녀들의 아이들 역시 성장에 커다란 장애를 겪는다. 그녀들은 덮개-기억을 걷어내고 새삼 그녀들의 원장면을 마주하고 싶지 않지만, 아니 그것이 두렵지만, 결국은 원장면과 마주한다. 그래야만 이 성장 장애의 상태를 그녀들 세대에서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세 자매>는 익숙한 이야기의 단순 반복과 거리가 멀다. 익숙한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그것을 ‘현재적 의미로 충만한 그것’으로 되살려 놓았다고 해야 한다. 시대를 넘어서서 여러 사람에게 반복되는 이야기란 곧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무조건 발칙한 이야기를 만드는 것보다는 수없이 반복되는 이야기 속에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현존재들의 실존 형식과 탈-존의 가능성을 가장 밀도 높게 재현하고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을 터, <세 자매>는 바로 그런 사례를 모범적으로 구현한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세 자매>가 현재적 의미로 충만하다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과 관련이 있다. 힘겹게 갑작스레 귀환한 원장면과 마주한 ‘세 자매’는 용기를 내어 그녀들의 삶 전체를, 그리고 그녀들의 딸/아들들의 성장을 점점 더 힘들게 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사과를 요구한다. 하지만 원초적 아버지는 그것을 거부한다. 그렇다면 이 세 자매의 삶 앞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해결 과제가 남아 있는 셈이 된다. 그것은 가해자인 아버지와 어떤 식으로 관계를 재정립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과-용서-화해의 길일 수도 있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데리다가 말한 진정한 용서의 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길이건 간에 ‘세 자매’의 앞에는 또 다른 결단과 결전의 순간이 연속적으로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세 자매들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를 우리 앞에 제기하기도 한다. 이처럼 <세 자매>는 성장에 실패한 세 자매의 뒤늦은 성장 이야기를 통해 현존재들의 성장의 불가능성과 가능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영화라 할 수 있다.

케빈 맥도널드 감독의 <모리타니안>은 2015년 출간된 모하메드 울드 슬라히의 「관타나모 다이어리」를 원작으로 한 영화다. 모하메두는 9.11 테러 이후의 어느 날 집에서 누군가에게 끌려간다. 9.11 테러의 주동자라고 볼 만한 몇 가지 정황 증거 때문이다. 빈 라덴의 측근인 사촌과 통화를 한 적이 있고 그 사촌이 그에게 송금한 적이 있다는 것. 사실 이 돈은 사촌의 아버지를 병원에 모셔달라며 부친 돈이지만 테러 자금으로 받아들여져 그는 의심만으로, 그 어떤 법적 절차도 없이 2002년부터 관



타나모 수용소에 갇히는 몸이 된다. 그리고 6년의 수감 생활 끝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데 그 어떤 객관적 증거도 없이 오로지 그의 자백에 기대 재판이 진행된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그의 자백이란 혹독한 고문과 협박, 인간적 모멸의 결과물임이 밝혀지고, 그는 자신의 죄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 혹독한 고문과 치욕적인 모멸의 장면을 기억하고 기록한다. 「관타나모 다이어리」로 묶인 이 기록 덕분에 그는 무죄판결을 받지만 그가 관타나모를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책이 출간된 이후인 2016년 10월 17일이었다.

<모리타니안>은 「관타나모 다이어리」가 출간된 지는 4년 만이지만 ‘관타나모 수용소’가 그 악명을 떨친 지 거의 20여년 만에 나온 영화인 셈이다. 물론 「관타나모 다이어리」같은 기폭제가 있어야 했겠기에 오랫동안 ‘관타나모’를 외면했다고 하기엔 어렵지만, 그래도 뒤늦게 도착한 영화라는 느낌까지를 떨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위안을 삼을 점도 있다. <모리타니안>이 뒤늦게 도착했다는 시차(時差)가 주는 아쉬움을 메우고도 남는 강렬한 밀도를 유지하고 있는 까닭이다. 원작의 힘일 수 있겠다. 하지만 감독의 연출력과 명품 배우들의 놀라운 연기 양상을 또한 이 영화가 줄곧 유지하는 밀도의 원천이다. 특히 서로 다른 자리에 있는 두 입장의 네 가지 시선¹⁾을 비교, 대조해가다가 정점에서 외설적으로 조우하게 하는 치밀한 배치는 경탄할 만했다. 그리고 모하메두에게 가해지는 긴 고문 장면(수면 장애, 물고문, 성적 수치심, 극심한 추위와 공포, 시청각 자극제, 가족을 이용한 협박 등)을 통해 표출되는 영화의 진실을 향한 열의는 단연 압도적이었다.

한마디로 <모리타니안>은 뒤늦게 도착한 감은 있지만 미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예외상태적 구조적 폭력과 인종적 증오와 혐오를 짙진하게 재현한 영화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모리타니안>은 이 구조적 폭력과 혐오의 시대를 헤쳐나갈 길을 제시하는바, 이 또한 경청할 만하다. <모리타니안>이 제시하는 제시하는 탈-존의 윤리학은 이렇다. 구조적 폭력의 희생자일 경우 용기를 내서 그에 맞서는 무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폭력적 구조의 한 성원일 땐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아감벤)을 발휘하라는 것. 무언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경우엔 어떤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스파이의 아내>는 늦어도 한참 뒤늦게 도착한 영화로 보였다. 적어도, 내겐 그랬다. <스파이의 아내>는 731부대의 그 악명 높은 생체실험을 소재로 한 영화이다. 일본 영화사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 그간 일본 영화에서 이

1) <모리타니안>은 특이하게 모하메두를 두 개의 대립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지 않는다. 각각의 자리에서 또 다른 시차(時差)가 발생, 모하메두를 바라보는 시선은 모두 네 개가 된다. 먼저 국가기구의 시선. 국가기구는 모하메두를 9.11 테러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사형선고를 내리고자 하나 국가기구의 대리인인 군검찰관은 모하메두의 혐의가 고문에 의한 것임을 인지하고(그는 말한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아무나가 아니라.”) 기소를 거부한다. 반면 모하메두의 변호를 맡은 두 변호사 역시 둘 사이에는 미묘한 시차가 존재한다. 그 중 낸시는 모하메두 개인을 변호하지 않는다. 그녀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것은 물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6년간 초법에 의해 강제로 수감된 모하메두를 변호한다. “난 그를 변호할 뿐 아니라 이 나라 법도 변호하는 거다.” 이에 비해 동료 테리는 처음에는 모하메두 개인을 변호한다. 그 때문에 고문에 의해 조작된 그의 진술서를 보고 테러범을 변호할 수 없다며 사건에서 빠졌다가 나중에 모하메두의 다이어리를 읽고 다시 합류한다. <모리타니안>은 이렇게 모하메두를 둘러싼 두 입장, 네 개의 시선이 서로 뒤엉키면서 서사가 진행되며 이 때문에 선악의 이분법적 대립을 훌륭하게 비껴간다.

소재가 다루어진 적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으나, <스파이의 아내>라는 작품 자체로만 한정하자면 늦어도 너무 늦게 731부대 사건을 불러냈다고 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그런데 문제는 뒤늦은 호명에 그치지 않는다. <스파이의 아내>는 나치의 아우슈비츠와 비견되는 그 사건을 불러내면서도 희미한 그림자로 불러낸다. 완곡해도 너무 완곡하달까.

여기 일본인이기보다는 코스모폴리탄을 지향하는 한 사내가 있다. 그는 코스모폴리탄적 존재를 악마화하고 오로지 일본국민-되기를 강제하던 1940년대의 상황에서 자신은 변함없이 코스모폴리탄으로 살아갈 것임을 때로는 냉소적으로, 또 때로는 호방하게 선언하곤 한다. 그러던 중 사업차 만주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731부대의 만행을 접하게 된다. 그리고 코스모폴리탄이라는 비-국민이 아니라 스파이라는 반-국민이 되기로 한다. 그의 곁에는 애오라지 그만을 바라보고, 다만 그와의 화목한 가정을 꿈꾸는 아내가 있다. 그녀는 만주국에서 돌아온 그가 변화했음을 감지한다. 처음에는 그의 변화를 부인하고 예전의 그로 되돌리려 한다. 하지만 731부대의 만행이 담긴 사진들을 보고 스파이가 된 그를 인정한다. 아니, 인정을 넘어 동조한다. 한데, 스파이인 그는 아내의 만류도, 아내의 동조도 흔쾌하지는 않다. 아내를 사랑하는 까닭이다. 아내가 그의 결단을 만류할 때는 그로 인해 사랑이 깨질까봐, 그리고 아내가 그를 따르기로 할 때는 그 모험 때문에 아내가 위험에 빠질 것이 걱정이다. 그는 아내를 속이기로 하고, 결국 아내를 두 번 속인다. 한 번은 스파이가 아닌 척, 다른 한 번은 아내와 같이 스파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는 아내와 함께 두 개의 서로 다른 판본의 영화를 만든다. 하나는 아내를 주인공으로 한 비련의 사랑 영화이고, 다른 하나는 그 필름에 731부대의 만행을 덧붙인 판본. 결국 그는 아내가 치명적인 위험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첫 번째 판본의 영화를 그녀에게 주고 잡히게 하고, 자신은 두 번째 판본을 들고 미국으로 떠나 성공적으로 731부대의 생체 실험의 실상을 알린다. 이처럼 <스파이의 아내>는 스파이인 그가 그의 아내를 두 번 속이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니와, 731부대의 생체 실험의 실상은 몇 장의 사진으로 뿌영게 제시된다. 80년만의 귀환인데, 게다가 아우슈비츠에 비견할 만한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 정도인 것이다. 완곡해도 너무 완곡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든 까닭이다.



하지만 <스파이의 아내>의 이 뒤늦고도 빛바랜 듯 뿌연 귀환은 현재의 일본적 상황을 비추어보자면 엄청난 결단의 결과라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물론 <스파이의 아내>의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은 “그렇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지는 않았다. 역사적 사실이 있으니 반하지 않게, 바르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최근 일본의 상황이라면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알고 있지 않은가. 최근 일본은 ‘역사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고자 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더욱 강고한 권력의지로 그것을 원천적으로 그리고 원초적으로 폐제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다. 어떤 면에서 현재의 일본은 1940년대의 그 군국주의적 상황으로 퇴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한다면, <스파이의

아내>의 뒤늦은 귀환은 현재 일본의 군국주의적 퇴행과 맞서려는 강인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은 <스파이의 아내>에 대해 말하면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나름의 각오’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바, 이는 <스파이의 아내>가 놓인 자리를 알려주기에 충분하다. 비록 <스파이의 아내>, <모리타니안>과 비교해보자면, 731부대의 실제적 진실을 너무 완곡하게 불러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름의 용기’로 어렵게 밝혀진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다시 되짚으려는 국가·기구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음은 열렬한 환호와 환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찍이 프로이트는 ‘억압된 것의 귀환’에 대해 말한 적이 있거니와, 굳이 이 말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먼 시기 여러 공간을 돌아 도착한 장면들은 그 동안 상징질서로부터 원천적으로 그리고 원초적으로 집요한 억압을 당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뒤늦게 도착한 사건 거의 대부분은 상징적 질서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실제화된 사건들이라 이름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을 뒤늦게, 그것도 너무 오래 전의 것을 뒤늦게 불러낸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견고한 상징질서의 덮개를 걷어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터이다.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본 세 편의 영화 <세 자매> <모리타니안> <스파이의 아내>는 뒤늦게 도착한 영화라기보다는 상징질서의 견고한 억압을 뚫고 이제야 비로소 도착한 실재적 진리 그 자체라고 해야 한다.

이 세 편의 영화는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어떤 것은 목숨을 걸고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인간 각자의 탈-존의 가능성, 그리고 우리 모두의 고차의 상징질서를 향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들이 뿜어낸 진리의 빛을 자기화, 내면화하여 그 진리의 길을 현실화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 하지만 진리의 길을 떠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우리에게 한 줌의 강렬한 불빛을 비쳐준 이들 작품을 열렬히 환대하고 뜨겁게 응원하는 일.

멋지다, <스파이의 아내>. 환영한다, <모리타니안>. 고맙다, <세 자매>.

3.

‘채식 아침’과 대지의 발견; 위기의 지구를 구하는 두 가지 길

조너선 사프란 포어의 『우리가 날씨다』를 읽었다. 『우리가 날씨다』는 현재 지구가 처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 위기에서 벗어날 길을 제시한 책이다. 그런데 책 제목을 ‘우리가 날씨다’라고 붙여 놓았다. 부제도 흥미롭다. ‘아침식사로 지구 구하기’. 인류가 지구의 생태환경에 불가역적인 치명상을 입히고 있음을 적시한 인류세라는 용어가 널리 퍼져나가고, 그와 더불어 ‘우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죽어가고 있다’라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정작 우리 모두가 이런 위

기를 모른 채하고 태연하게 살아가는 상황을 염두에 둔 충분히 계산된 제목이고 부제다 싶었다.

사실 우리는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다. 지구가 심각한 생태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지금 이대로라면 얼마 되지 않은 미래에 지구 전체의 생명, 그중에서도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부터 그 생존이 위태로울 것이라는 점을. 하지만 들어 알고는 있으나 체감하지는 못한다. 아니면 잘 모르면서 알은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아니면 충분히 알지만 다들 태연하게 사는데 혼자서만 희생하지는 않겠다는 계산적, 냉소적 판단 때문일 수도 있다. 그것도 아니면 ‘설마 지구가’ 하는 마음 때문이거나 우리 모두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아질 때 그것이 얼마나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경험하지 못한 때문일 수도 있다. 어쨌든 우리는 지구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정보 차원으로는 알고 있으나 그것을 당장 우리 눈앞의 절박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조너선 사프란 포어는 물론 현재 지구가 처해 있는 생태적 위기를 심각하게 바라본다. 하지만 조너선 사프란 포어가 더 두려워하는 상황은 이 비대칭 상태, 그러니까 위기에 빠진 지구와 인간 모두의 무감 혹은 무책임 사이의 어마무시한 시차(時差, 視差)다. 당연히 그는 이 시차를 줄일 묘책 마련에 모든 에너지를 쏟거니와, 그 묘책을 담은 책이 『우리가 날씨가』이다.

『우리가 날씨가』는 먼저 ‘우리가 날씨가’라고 선언한다. 날씨가말로 인간을 포함 전지구의 생명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조건인데 그 날씨를 결정짓는 것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라는 것이다. 날씨와 인간은 한 몸이다. 굳이 ‘인류세’라는 개념을 빌 필요도 없다.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 지구의 기후를 결정짓는 것은 인간이고, 인간의 문명이다. 만약 기후 위기가 어떤 임계선을 넘어 지구의 생명체 전체가 죽어 나간다면, 그것은 다름아닌 인간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현재 인간은 자신의 묘혈을 스스로 파고 있다고 할 것이며, 『우리가 날씨가』는 ‘우리가 날씨가’라는 선언으로 그것을 명확히 한다.

지구를 파괴할 존재는 우리뿐이다. 지구를 구할 존재도 우리뿐이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가장 희망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지만 반대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지구의 모든 생명을 완전히 쓸어버릴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완전한 파멸이 닥치면 지구상의 생명을 다시 살려 낼 방법도 찾은 것이다. 우리가 홍수이고 방주이다.²⁾

하지만 『우리가 날씨가』에는 임박한 파국적 상황에 대한 경고와 우리의 태도 전환에 대한 막연한 촉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파고 있는 무덤을 덮고 그것을 발판 삼아 ‘눈이 부시게 푸르른’ 삶을 살 수 있는 길도 동시에 알려준다. 그런데 그 길은 신에게서 불을 훔쳐 와야 하는 그런 힘든 일이 아니다. 『우리가 날씨가』는 ‘아침식사



2) 조너선 사프란 포어, 송은주 옮김, 『우리가 날씨가』, 민음사, 2020, 230면.

로 지구 구하기'라는 이 책의 부제에서 감지할 수 있듯 그 일이 의외로 간단하다고 말한다. '아침식사만 바꾸면 지구를 구할 수 있다는 것.' 조너선 샤프란 포어는, 그가 이전에 동물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에서 이미 충분히 설득력 있게 밝힌 것처럼 오늘날 지구 파괴, 기후위기의 핵심적인 요인을 축산업에서 찾는다.

- 2018년, 미국에서 식용 동물의 99퍼센트는 공장식 농장에서 키워진다.
- 인간은 해마다 650억 마리의 닭을 먹는다.
- 1960년 공장식 축산이 시작되고 1999년까지, 메탄의 농도는 지난 2000년 중 어느 시기의 40년과 비교해도 여섯 배 더 빨리 증가했다.
- 벌목의 약 80퍼센트는 목초와 방목에 필요한 땅을 얻기 위해서다.
- 아마존 벌목의 91퍼센트는 축산업 때문이다.
- 개인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활동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채식 위주로 먹기, 비행기 여행 피하기, 차 없이 살기, 아이 적게 낳기.
- 위의 네 가지 행동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과 이산화질소에 즉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채식 위주의 식사뿐이다.
- 누구나 식사는 곧 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구에 대한 걱정을 행동으로 당장 옮길 수 있다.
- 아침 점심으로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다면 세 끼 모두 채식으로 하는 식단의 평균보다 이산화탄소 발자국을 더 줄일 수 있다.³⁾

화석연료의 한도를 정하여 기후변화를 되돌리거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필요한 재생 에너지 기반 시설을 갖추려면 적어도 53조 달러의 비용에 적어도 20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때쯤이면 기후변화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을 겁니다. 이와 달리 동물성 제품을 대체품으로 바꾼다면 온실가스 배출을 급속히 줄이면서 동시에 땅을 비워서 더 많은 나무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대기 중 탄소 초과분을 가둘 수 있게 되는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성 제품을 대체품으로 바꾸는 것이 너무 늦기 전에 기후변화를 되돌릴 유일한 실용적 방법인 것 같습니다.⁴⁾

『우리가 날씨다』에 따르면 우리가 지상의 양식으로 하고 있는 '동물성 식품'이 문제다. 동물 사료를 위해 어마어마한 농토가 점유되고, 지구의 심장이라 하는 아마존이 나날이 사막화되어 간다. 이처럼 동물성 식품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다. 그것도 '식습관을 포기하거나 지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일 정도로. 그러므로 지구를 구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은 '동물성 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일이다.

3) 위의 책, 2장 '어떻게 하면 대멸종을 막을 수 있을까'의 여기저기.

4) 위의 책, 284면.

다. 그러나 모두가 채식주의자가 되자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의 부제가 말하는 것처럼 ‘아침 (점심) 식사’만 채식이어도 지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날씨가 이 처럼 머지 않아 직면할 위기적 상황을 경고하는 한편 그 위기적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실질적인 행동강령을 제시한다. 그런데, 그 강령이 뜻밖에도 간단하다. 만약 이 정도인데도 망설인다면, 그는 지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자이거나 브루노 라투르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그들 자신만을 피신시키기 시작’한 자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조너선 사프란 포어의 『우리가 날씨가』가 생태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하기 위한 액션 플랜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흔히 ‘네트워크의 군주’로 불리는 브루노 라투르의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이하 『착륙』으로 약칭함)은 생태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하기 위한 역사철학의 정립에 초점을 맞춘 책이다. 『착륙』은 우선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세 가지 현상을 각각의 현상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문제라고 보는 데서 출발한다. 『착륙』에서 주목한 세 가지 현상은 다름아닌 신자유주의적 탈규제, 전세계적인 불평등의 폭증, 기후변화(의 실재 자체를 부정하는 체계적인 시도)이다. 『착륙』은 이 ‘세 현상을 동일한 역사적 상황의 증상’이라고 파악하고, 그 증상이 ‘핵심지배계층이 지구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에 충분한 공간이 남아 있지 않다’고, 그러므로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번영할 세계, 그 공동의 지평선을 향하 역사가 나아갈 거라 믿고 행동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결정’하고 ‘세상으로부터 그들 자신만 피신시키기 시작’⁵⁾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물론 『착륙』은 이 증상이 단지 오늘날 갑자기 시작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에서부터 줄곧 이야기한 것처럼, 트럼프의 ‘포퓰리즘의 발흥’은 오래 전부터 준비된 것일 뿐이며 그런 의미에서 이는 ‘근대주의의 폐허’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착륙』은 신자유주의적 탈규제, 불평등의 폭증, 기후변화를 단순히 국민국가의 보호로 귀환하려는 광적인 갈망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현재의 ‘근대주의의 폐허’를 더욱 가속화시킬 뿐이라고 파악하고, 근대주의로 요약할 수 있는 18세기 이후의 상징질서를 해체하고 보다 고차의 질서를 구성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역설한다.

『착륙』에서 그가 제시하는 방법 역시 이제까지 그가 줄곧 이야기해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바로 비근대적 계몽주의의 실현이고 객체들의 민주주의다. 브루노 라투르는 『착륙』 이전 여러 저작,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에서 인류의 한 역사적 단계를 결정지은 근대성의 원리가 이중의 교묘한 자기 합리화 혹은 자연과 사회, 과학과 문화, 사실과 가치, 대상과 주체의 분할과 이에 비대한 대칭적 태도를 통해 문화와 자연 사이의 다양한 매개체와 정치적 행위자를 배제했음을 통렬하게 비판한 바 있다. 또한 동시에 이 비대칭성이 전근대인(과거)과 근대인(현재), 그리고 근대 문명 외부의 ‘그들’과 ‘우리 근대인’ 사이에도 강력한 형태로



5) 브루노 라투르, 박범순 옮김,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 이룸, 2021, 17-18면.

관철되었음을 지적한 바⁶⁾도 있다. 그 결과 인류 역사의 근대는 근대가 명분으로 내건 것과는 전혀 불완전한 형태로, 폭력적으로 유지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인류 전체가 각 지역에서 쌓아온 민속지적 지혜와 해안들이 이름뿐인 근대성의 원리에 의해 정화의 명분으로 폐기되었다고 진단한다. 브뤼노는 줄곧 이러한 근대성의 비대칭적 계몽주의를 비판하고 비근대적 계몽주의로의 전회를 주장해왔던바, 『착륙』에서도 이러한 그의 일관된 입장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브뤼노 라투르는 최근 브라이언트가 정리한 것처럼 비근대적 계몽주의로의 전회를 위해 객체들의 민주주의를 그 길로 제시하는바, 『착륙』에는 그 객체들의 민주주의의 길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특징적이다. 브루노 라투르는 이미 알려진 대로 우리의 인식론과 존재론을 결정하고 있는 소위 우리의 근대주의가 문화와 자연,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혹은 인간 주체와 비인간 객체 사이의 견고한 단절을 가져왔으며, 이런 근대성론으로 인해 인간은 그 다양하고 무수한 객체들과 준객체들을 배제한 채 세계를 단지 인간에-대한-세계로만 규정함으로써 비인간 객체들의 존재 자체를 도외시하게 되었다고 줄곧 말해온 이다. 그런데 『착륙』에 이르러 브뤼노 라투르는 이 객체들의 민주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보는 듯하다. 『착륙』은 신자유주의적 탈규제, 전세계적인 불평등의 폭증, 기후변화(의 실재 자체를 부정하는 체계적인 시도) 등 근대성의 논리가 지구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데도, 오늘날 우리는 트럼프식의 자멸적 포퓰리즘(“우리 미국인은 당신들과 같은 지구에 있지 않아. 너희들의 지구는 위협받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지구는 괜찮아!”)이 열렬한 환호를 받는 상황을 살고 있으며, 그러므로 당장 객체들의 민주주의를 구현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지구와 충돌하며 파멸에 이르고 말 것이라는 현실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나 할까.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 『착륙』은 ‘대지’라는 ‘새로운 정치적 행위자’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착륙』에 따르면 오늘날 대지라는 정치적 행위자는 인간이 행위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단순한 틀이 정도가 아니다. 그곳은 인간의 생존 자체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행위자이며, 인간 이외의 수많은 사물과 다양한 매개물들을 만들어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그 대지가 말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듣고, 그 대지 속에서 생성되는 모든 것들을 직시해야 한다.

‘대지의 것’의 거주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생계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과 관련하여 무엇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필요하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방어할 것이 무엇인지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늑대에게도, 삼림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가족뿐만 아니라 신에게도 모두 유효하다. …… 그런 목록을 만드는 일은 확실히 힘든 일이다. 여기에서 생산 프로세스와 생성 프로세스의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생산 시스템에서는 목록을 만들

6) 브뤼노 라투르의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가 지적한 근대성의 비대칭성에 대해서는 홍철기, 「움긴이 후기」(브뤼노 라투르 지음, 홍철기 옮김,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갈무리, 2009.) 참조.

기 쉽다. 투입된 노동자와 자원을 고려하면 된다. 생생 시스템에서는 이를 구성하는 매개자, 활성체, 행위자 모두가 고유의 궤적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일이 훨씬 더 어렵다. ……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철저히 찾아서 계급적 정의를 확대하는 것이 관건이다. ‘대지의 것’인 당신은 무엇에 가장 마음을 쓰는가? 누구와 살기를 원하는가? 생존을 위해 누가 당신에게 의존하는가? 누구를 상대로 투쟁해야만 하는가? 매개자의 중요도를 어떻게 순위 매길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야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다.⁷⁾

원칙적이고 추상적이지만 우리 모두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책임한 상태에서 우리 주변의 사물들과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알기에는 충분하다. 동시에 우리 모두가 이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목소리를 들어야 하며, 그러면서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이제 우리는 근대의 미망에서 벗어나서 무지하고 무책임한 우리 인간 때문에 대지에서 벌어지는 일을 봐야 하고, 대지의 온갖 사물들이 원하는 목록을 만들고 그 목록에 따라 우리의 정치적 통일체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 이 일은 이제 미룰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이 일을 미루면 착륙이 경고하는 대로 우리는 지구와 충돌하여 난파하여 거처를 잃을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4.

‘먼저 나눠주기’와 ‘노나메기’ 혹은 기본소득의 전사前史

소위 ‘4.7 재보궐 선거’가 끝났다. 언제나처럼 승자는 환호하고 패자는 고개 숙여 반성하는 모습이 반복되었지만, 이상한 선거였고 흔쾌하지 않은 선거였다. 적어도, 내겐, 그랬다. 불안전하고 체계적이지 않은 주거안정정책 때문에 순식간에 주거가 불안정해진 이들이 정부의 주거안정대책을 소리 높여 비판한 것은 오히려 당연했다. 그리고 그들 중 적은 않은 이들이 이 불안정한 상황을 견딜 수 없다며 무리해서라도 집을 마련하기로 한 것 또한 충분히 이해할 만했다. 그러다 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집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집값이 폭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이들이 소위 ‘영끌’의 모험을 감행한 것도 납득할 만했다. 여기까진 있을 법한 일이었다. 한데 상황이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이렇게 집값이 들썩이자 소위 ‘벼락부자’를 꿈꾸는 이들이 다시 ‘영끌’을 시작했고 이 폭발적인 가수요는 몇몇 이들에게 벼락같은 이익을 안겨주었고, 그러자 어!, 하는 사이에 ‘벼락거지’가 된 이들의 분노가 쌓이기 시작했다. 물론 이 분노는 한 갈래는 아니었을 것이다. ‘벼락부자’의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

7) 브뤼노 라투르, 『착륙』, 134~135면.

상실감에 기반한 분노일 수도 있고,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주거안정대책 때문에 갑자기 주거가 불안정해진 것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분노 중 정치권은 전자의 분노에 집중, 필연적으로 집값 상승을 가져올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한 쪽은 어정쩡했고, 한 쪽은 노골적이었다. 노골적인 한 쪽은 심지어 자신들이 노골적으로 ‘벼락부자’가 된 이들이기도 했다. 어쨌거나 선거는 노골적인 쪽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고, 그 노골적인 쪽은 그 여세를 몰아 집으로 부자가 된 이들이 어떤 불편과 불리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러니 앞으로 계속 집에 투자하여 불로소득을 이어가 보라고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는 중이다. 진 쪽도 이 민심을 거스르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중이다. 오늘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정책은 완전 실종되고 누가누가 더 우리들의 화수분적 욕망을 충족시켜줄 것인지를 놓고 처절한 쟁투를 벌인 선거였다고나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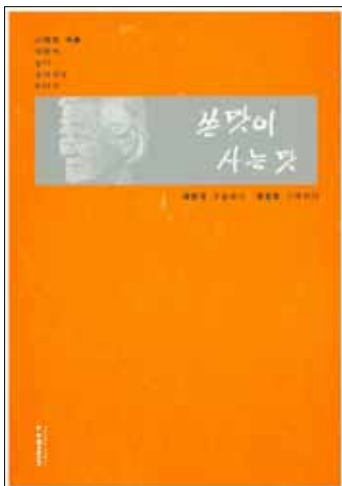
한때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다. ‘작고 확실한 행복’ 혹은 ‘작으나 확실한 행복’에 관심을 갖던 때. 그것을 삶의 바람직한 자세 혹은 윤리로 서로 응원하던 때.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보자면 ‘소확행’이란 지난 시대의 유물처럼 다가온다. ‘소확행’의 시대는 가고 ‘영끌’의 시대가 온 듯하다.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런데 최근 이렇게 노골적인 탐욕이 판치는 세상에 사표가 될 만한 두 분이 우리 곁을 떠났다. 바로 채현국 선생과 백기완 선생이다. 두 분은 모두 브뤼노 라투르의 표현을 빌자면 ‘자신이 편안히 살아남기 위해서는 꿈에서도 지구를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척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지배계급과 한평생을 담담하게 담대하게 저항했던 분들이고, 이 탐욕의 세상에서 ‘소확행’을 꿈꾸면서도 동시에 그 행복을 한 톨이라도 다른 이들과 나누고자 했던 분들이다.

자기 개인 재산이란 게 어딴냐? 다 이 세상 거지. 공산당 얘기가 아니다. 재산은 세상 것이다. 이 세상 것을 잠시 내가 맡아서 잘한 것뿐이다. 그럼 세상에 나눠야 해. 그것 자식한테 물려줄 게 아니다.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닌데……⁸⁾

나누어 먹기를 잘하면 성공합니다. 우리의 속성이 (돈 혹은 성과물을) 조금 늦게 나누어줍니다. 남들보다 앞에 나누어주면 생명을 걸고 돈을 벌어줍니다. 바로 그걸 했던 겁니다. 좀 힘들 때 먼저 나누어줍니다. (그러면) 목숨 걸고 벌어줍니다. …… 나눠먹기를 잘해야 합니다. 구멍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⁹⁾

채현국 선생의 말이다. 재산은 세상 것이므로 모두에게 나누어야 하고, 나누는 것도 나중에 보상하는 형식이 아니라 먼저 나누어주면 그가 속한 곳에 헌신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렇게 평생을 살아온 채현국 선생을 두고 앞서 기본소득의



8) 채현국정운현, 『쓴 맛이 사는 맛』 비아북, 2015, 42면.

9) 위의 책, 48면.

정신을 실천한 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그러니 참된 하제란 무엇이겠어요. 남을 시켜만 먹으려 들면 그건 참짜 하제를 죽이는 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도 일하고 나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너도 나도 잘살되 올바르게 잘살아야 그게 참짜 하제지요. 무슨 말이나, 잘살되 나부터 잘살겠다고 하면 그건 남이 흘린 피눈물의 땀을 내가 뺏겨 다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나부터라는 똥속(욕심)을 찢어 팡개치는 참된 깨우침으로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합니다. 둘째, 사람만 잘살겠다고 해서도 안됩니다. 이 누름(자연)과 더불어 다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사람만 잘살아보자고 하면 이 누름, 이 아름다운 누리(우주)까지를 모두 찌코라뜨리게(망치게) 됩니다. 셋째, 사람의 몸쓸 된깁(본질)의 하나가 무엇인 줄 아세요? 깜빡 깨어났다가도 깜빡 잊고 마는 깜딱(나밖에 없다는 못된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나. 사람이라는 목숨(생명)으로 다른 모든 목숨을 다 내쳐버리는 그 못된 된깁입니다.

어떻게 제 목숨만 목숨입니까. 다른 모든 목숨도 목숨이지. 그러니까 그런 몸쓸 된깁일랑은 그대로 찢어 팡개치고는 참목숨, 다시말하면 목숨 아닌 댄목숨(반생명)과 싸워 퇴운 참목숨인 살티를 살려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겠어요. 그게 무엇이겠냐구요. 그게 바로 노나메기입니다.¹⁰⁾

백기완 선생의 『버선발 이야기』의 한 구절이다. 백기완 선생은 한평생 ‘노나메기 세상’을 꿈꾸며 사셨던 이다. 백기완 선생의 ‘노나메기 세상’이란, 거칠게 정리하자면, ‘너도 일하고 나도 일을 해’서 만들어진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나누는 세상일 것이며, 그를 통해 ‘나도 잘살되 올바르게 잘살며’ ‘누름(자연)과 더불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다. 백기완 선생은 이 ‘노나메기’ 세상을 위해 항상 ‘앞서서 나가’셨던 이다. 앞서서 나가는 것으로 모두를 산 자로 이끌었던 분이며, 폭력 앞에 동요할 때 용기를 잃지 않게 하던 분이다.

돌이켜보니 의식하지는 못했지만 나는 백기완-키드인 듯하다. 나는 페미니즘을 백기완 선생의 『자주 고름 입에 물고 옥색치마 휘날리며』를 통해 배웠다. 내가 지금 여성에게서 오히려 탈-존적 주체일 가능성을 훨씬 더 자주 발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백기완 선생의 가르침 덕분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며 역사의 현장에 한 순간이라도 더 있으려고 했던 것 또한 백기완 선생의 이 꿈에 따른 것이다. 나는 선생에게서 어떤 순간이라도, 아니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오히려 더 망설임없이 일어서는 용기를 이어받지는 못했다. 하지만 선생 덕분에 ‘욕처럼 남은 목숨’을 부끄러워하며 적어도 비겁하지는 않으려고 눈을 부릅뜨며 살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보니 나를 기본소득으로 이끈 것 또한 선생인 듯하다. 다시 보니



10) 백기완, 『버선발 이야기』, 오마이북, 2019, 268-269면.

내가 상상하고 꿈꾸는 기본소득 세상과 ‘노나메기’ 세상이 거의 같다.

끝으로 확고한 용기와 결단으로 앞서서 나가서 세상을 보다 높은 지점을 이끈 두
분의 명복을 빈다. 더불어, 원컨대, 나에게도 용기가 생겨 앞서서 나가지는 못하더라
도 먼저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